

사·부·대·중

불교대학의 고민



홍승 스님 대구 부도암

동화사 부설 대구불교대학이 얼마 전에 개학을 하고 강의를 시작했다. 2년제 불교대학으로, 해마다 2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내가 그 곳의 소임을 맡고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아니라, 대구불교대학을 통해 교육에 대한 승가와 불자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한다.

일반 전문대학 수준인 대구불교대학은 그래도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어서 입학생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올해는 경제가 어려울 탓인지 입학생이 예년의 3분의 2 정도에 머물렀다. 학생들의 학비로 운영되고 있는 불교대학으로서도 당연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없이 각 임원들이 사람들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만 이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다. 재학생 임원단들이 다녀와서는 신심 떨어져서 못 다니겠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닌가.

얘기를 들어본즉, 꽤 규모가 큰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어느 스님에게 찾아가 신도들의 불교대학 입학에 권유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나는 우리 신도들 불교대학 안 보내. 불교대학 보내달라니 쓸데없는 것만 배워서 중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으려고 한다"며 등을 떠밀더라는 것이다. 또 다른 사찰에서는 "불교대학 오라고 꼬셔서 신도를 가로채려고 한다"는 얘기를 전하는 학생들 앞에서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물론 그 스님들 얘기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또 재가자들도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지면을 통해서 소수의 그런 스님들과 재가자들의 흥을 보자는 것은 아니다. 단지 아직까지도 신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스님들이 있다는 사실과 불교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재가자들이 양산된다는 사실에 가슴아플 뿐이다.

재가 종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처우개선 없이 信心만 강요 '한계상황'

최근 서울 봉은사 재가 종무원의 해고-복직 사태를 계기로 사찰에 근무하는 재가종무원의 신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스님들의 지도아래 사찰 살림을 도맡아 하는 재가종무원, 노동자와 신도(또는 수행자)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재가종무원은 과연 어떤 존재이며, 왜 이 시점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을까. 재가종무원들의 살림살이를 통해, 재가종무원에 대한 스님과 불자들의 바른 인식은 어떠해야 할지 알아본다.

■재가종무원의 신분

조계종 <종무원법>에 따르면 '재가종무원'의 개념은 '불교신도로서 종단에 봉사하는 자'를 말한다. 승려로서 종단에 봉사하는 '교역직' 종무원을 제외한 일반직·잡무직 종무원이 이에 해당된다.

본사급 재가종무원 월급 80~130만원 '그래도 좋은편'

중소사찰 경우 고정 급여 없이 주지 재량따라

우바새·우바이도 사부대중 포함 공동체 인식 절실

만원, 상여금은 0~400% 임을 감안할 때, 말사급 재가종무원들의 처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일' 하려면 말사라는 기본, 신심으로 버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지난해 10월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및 주요사찰 등 34곳을 대상으로 재가종무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직장 가입), 산재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무원의 사회보장

따라서 재가종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종단차원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4대 보험 가입은 종교단체의 성격상 시급이 없고 노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고정 급여가 없이 사찰 주지스님의 재량에 따라 들쭉날쭉한 급여를 받고 있는 중소사찰 재가종무원들의 급여체계는 중앙종무원에서 시급히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본·말사 재가종무원의 신분보장과 급여체계 등을 규정한 종무원 복무규정을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2일 봉은사 재가종무원의 복지 조처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재가종무원의 신분이 사회

봉은사 부당해고 직원 복직결정

봉은사 전 직원 두 사람의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사찰측이 복직 결정을 내림으로써 최근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봉은사의 파행적인 인사행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종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목소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건 경위를 보면 이같은 지적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봉은사 전 기획과장 박금직씨와 불교용품 판매점인 응향각 팀장이었던 민경대씨는 지난 2일 재가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단 한차례의 소명기회조차 없었으며,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통보만 받았다"며 "아무런 절차없이 해고한 것은 명백한

적 규범에 걸맞게 안정적으로 보장되기를 희망한다"며, "나아가 재가종무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뿐만 아니라, 건강·실업·재해·노후 보장 등 국민 전체가 누리고 있는 사회보장에 대해 종단 차원의 각별한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재가연대는 또 "재가종무원의 신분은 '각급 종무원의 장'이 교체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용과 해고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요 직할 및 직영사찰과 교구본사 등 핵심 사찰들에 있어서는 상호 인적교류가 가능한 '전문직 종무원제'의 도입을 범종단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부대중의 사찰 운영

그러나 재가종무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에 앞서, 그들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출가 수행자의 단체인을 일컫는 말이 된 '승가'라는 말이 초기에는 출가수행자인 비구·비구니 뿐만 아니라, 우바새(남성신도)·우바이(여성신도)를 포함한 사부대중으로 구성되었듯이, 재가종무원을 사찰운영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간 재가자들은 '사부대중의 참여에 의한 종단 및 사찰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재가자를 교단의 일부로 인정하는 스님들의 인식전환과 재가자들의 신행혁신 및 참여의식 제고를 통해 출·재가가 함께 하는 불교공동체를 일궈나가자"는 것이 재가자들의 주장이다.

이런 시각은 더 이상 남원 실상사, 파주 보광사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교공동체운동 관계자들만의 목소리는 아니다. 스님과 재가종무원, 신도가 한마음이 될 때만이 이 땅에 불국토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봉은사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7일 첫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박씨의 경우 근무태도가 불량했음을 뿐만 아니라 해고 당시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며, 민씨는 응향각 팀장직을 보직해임했으나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봉은사는 마침내 12일 종무원회의를 통해 두 사람의 복직결정을 내리는 한편, 불자들에게 공식사과하기에 이르렀다. 한명우 기자

목탁소리

'대책없는 비판'

한명우 (취재1부 기자)

불교여성개발원이 지난 13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혜진스님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혜진스님 사건 이후 교계단체로서는 처음 있는 입장표명이었다.

이날 불교여성개발원이 밝힌 입장은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개 여성단체가 진상규명없이 이 문제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공식사과하고, 따라서 현재 이들 여성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진상조사위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이번 사태가 나눔의 집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불교여성개발원이 중점을 둔 부분은 이들 3개 여성단체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 내용중 "여성들은 언제나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은 불교여성개발원이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을 잘 보여주었다. 잘못된 여성운동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기자회견은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다. 우선 혜진스님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나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그 이유를 "정서적인 분리기반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입장표명을 미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불교여성개발원은 3개 여성단체와 문제를 제기한 여성, 그리고 혜진스님을 만나지는 않았으며, 진상조사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스님만을 만났을 뿐이라고 했다. 자체적인 노력없이 상황전개의 추이를 지켜보다 3개 여성단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이에 편승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논리였다.

게다가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이인자 원장을 비롯한 두 명의 상임위원은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문제를 제기해 놓고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왜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세 사람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방법을 찾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좀더 일찍, 그리고 뚜렷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기자회견이었다.

일반직 종무원은 각급 종무원의 재가 직원, 종립학교 교법사, 본·말사에 근무하는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재가포교사, 사무보조자 등이 포함된다. 또 잡무직 종무원은 환경미화원, 기사, 경비원과 안 내업무 종사자 등을 가리킨다.

재가종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해서는 종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정년을 보장토록 하고, 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종무수당)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적 규정과는 달리 재가종무원의 신분은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다. 대다수 사찰에 근무하는 종무원들의 경우 일정한 임무에 따른 급여를 받는 노동자라는 개념보다는, 불교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일반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신도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봉은사 재가종무원들의 해고-복직 사태는 재가종무원들이 스님들에게 '노동자'이기 보다는 '신도'로서 인식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종무원들의 근무조건

그렇다면 사찰의 굶은 일을 도맡아 하는 재가종무원들의 근무조건은 어떨까. 본사급 재가종무원들의 급여가 80~130

극에 달한 물질문명과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가? 선과 21세기 선방의 아침 선당 생활을 체험한 선승이 직접 쓰고 그림까지 곁들인 안내서 함께 건너는 세상 짧은 글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현대인들의 욕망

감사의 말씀 한국불교여래종 제1본산 남한산성 약사사 회주 종정 석인왕 자모이신 숙현 윤봉순 대보살님의 입적(음 2월15일, 양 3월9일) 영결 행사에 포교와 수행의 바쁜 날에도 찾아주시며 함께 애도해 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대중은 먼저 가신 대보살 유지의 뜻과 애도를 함께하여 주신 분들의 정성에 보답하기 위하여 포교 수행정진으로 불교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황금사리 1과 외 소색사리 500여과가 수습되었습니다. * 사리친건은 남한산성 약사사 (031-734-3205) 한국불교여래종 호상대표 인왕문도대표 약사사 주지 재가전교사 약사사 자문회 종정 석인왕 명안 신일섭 범우 김월봉 혜안 신재섭 회장 장세영 유희정 외 종단 단체장 및 신도회 울림